

# 김만복·노트북 ‘盧 의혹’ 풀 열쇠?

(전 국정원장)

## “김씨, 견호씨 투자 실패 보고설” 나돌아

## 檢, 盧 노트북 오르코스社 관련 사실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때문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지난주 초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100만 달러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개인 노트북이 아들 견호씨 소유의 오르코스사로 보내졌다가 되돌아온 사실을 확인하는 등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이 박연차 회장이 보낸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돈의 존재를 제임 중 알았다거나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만복의 갑작스런 등장=검찰이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원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김 전 원장이 100만 달러 의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견호씨의 미국 행적을 담고 있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조사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또 일부에선 국정원이 견호씨가 유학생 생활 중에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당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

다. 이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노 전 대통령이 100만 달러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돈을 넘겨받는데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한발 다가가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추측을 일절 부인하고 있어 김 전 원장의 당시 역할에 대해 궁금증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견호씨의 미국 행적을 담고 있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조사했다는 설이 제기됐다.

또 일부에선 국정원이 견호씨가 유학생 생활 중에 투자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을 당시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 결정을 앞 둔 임채진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체협관 개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문성우 대검처장(왼쪽), 한영관 기획조정부장(오른쪽)과 함께 청사 내 체험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이다. 검찰은 4일 “100만 달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을 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내용은 검찰과 김 전 원장만 알 것”이라고 관련 추측을 부인했다.

◇노트북이 ‘열쇠’되나=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노 전 대통령의 노트북이 오르코스 사 사무실로 갔다가 한달 뒤 다시 청와대로 되돌아왔다.

노트북에는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맥관리 프로그램인 ‘노하우 2000’이 저장돼 있었으며 검찰은 견호씨가 이 프로그램을 상품화하기 위해 노트북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견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아 오르코스에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견호씨가 아버지의 프로그램을 상품화하려 했다면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검찰은 보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견호씨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가 송금된 점과 이를 증자돈으로 한 사업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 “광주에 콜센터 양성 프로그램 추진”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등 지방의 주요 거점에 콜센터 인력을 양성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콜센터는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서 단계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적합하다”며 “시장 점유율이 2.2%에 불과한 광주시만 하더라도 올해 전문인력이 1천600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를 전적으로 확산하면 연간 20만명의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 힘을 모아 결실을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지사는 “F1 대회에 대해 아직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는 정부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밝히고 “2010년 F1 대회 전담 개최는 이미 정해진 사실인 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모든 공직자들이 대회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 전남도의회 ‘무등산 조례안’ 폐기 촉구

○광주시의회가 발의·추진 중인 ‘무등산 개발 조례’ 제정에 대해 전남도의회가 반발이 거세지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구준근 의원(민주·화순)은 4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전남도민이 눈앞에서 배제된 무등산 조례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며 “전남도의회 의원 50명 중 17명을 제외한 전체의원이 무등산 조례 폐기에 동의, 서명 날인했다”고 밝히고 무등산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할 수 있는 광주·전남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광주시의회 이철원 의원(민주·북구)은 이날 “무등산도립공원 관리청은 지난 1986년 시장·도지사 합의를 거쳐 광주시로 지정됐고 이후 무등산종합계획도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무등산 조례안은 이 관리권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박준영 “F1 지원법 내달 통과될 것”

○박준영(사진) 전남도지사는 4일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5월 정례회에서 “포틀러원(F1) 대회 지원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F1 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투자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성과물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지사는 “그동안 F1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4월 임시국회에서 F1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6월 국회에서 제정될 것”이라며 “공

## 盧측, 권여사 100만불 대처 부심

### 기억 부정확해 용처 다 파악 못할 수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4일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서부터 받아썼다고 진술한 100만달러의 용처 확인에 부심하고 있으나 권 여사의 기억이 불분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당초 용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급적 빨리 정리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화했다.

대해서도 수수과정이나 용처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실장은 “빨리 확인해서 확인되는 것은 확인되는 대로, 확인이 안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100만달러 용처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용처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권 여사가 100만달러나 되는 돈을 사용했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 용처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빨리 용처를 구체화하기 위해 권 여사의 기억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기억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권 여사가 정말 기억을 잘 못하고 상당히 혼란에 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권 여사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3억원에

## “검찰 출두 盧 음성 담당-불안 뒤섞여”

노무현 전 대통령에 검찰에 나갈 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당함도 감지됐다는 음성분석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립대 생체신호분석실 조동욱(51·정보통신학과)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을 지난달 30일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김해 봉하마을을 떠나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디다”라며 짧게 대국민 사과한 제마디 음성과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05년 12월 27일 시위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대국민사과 음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처럼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음성분석기(프리트)를 이용한 연구 결과 내면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피치(1초당 성대의 떨림)는 출두 당일 110.472~187.131Hz로 4년 전(75.315~128.920Hz)보다 높고 유·무성음의 비율로 표시되는 발음의 안정성은 47.703%로 4년 전(49.927%)보다 떨어졌다. /연합뉴스

# 임채진 “盧처리 독자적으로 판단”

## “결정은 검찰 몫... 언론·정치권 자제” 요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는 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은 확실한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과 영장 청구 절차 없이 바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임 총장이 검찰사(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이 ‘역사적인’ 선택을 할로 해야 하거나 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총수인 그의 판단이 최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임 총장은 “사회에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준사법기관에게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정에 독자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및 정치권 등 일각에서 수사 내용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의 결정이 그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집중 포화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채진 총장은 4일 오전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사회에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준사법기관에게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정에 독자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및 정치권 등 일각에서 수사 내용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의 결정이 그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집중 포화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있다. 임채진 총장은 4일 오전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는)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사회에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준사법기관에게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정에 독자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및 정치권 등 일각에서 수사 내용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만약 검찰의 결정이 그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 집중 포화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홈페이지 www.ins13.kr  
 •일 시: 2009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광주 인성고 13회 동창회  
 •장 소: 광주 인성고 모교 실내체육관  
 \* 광주 인성고 13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김천규 TEL: 011-614-0898 최성훈 TEL: 011-611-0442 송상훈 TEL: 010-7755-2753  
 \* 졸업 20주년 행사 추진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알립니다**  
 홈페이지 www.inscorg.or.kr  
 •일 시: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장 소: 광주 인성고 모교 운동장  
 \* 광주 인성고 총 동문회장: 박형욱

**투자자모심**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안전보장,수익보장,비밀보장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능

**사랑파이낸셜**  
 ☎(062)653-7500

= 저마다 합격의 예쁜 꿈을, 無等과 함께하면, “꼭”이뤄집니다!! =

# 7·9級 공무원 소직렬

3040 주부반모집 **개강** 5월 11일(주,아,평일모집) (원제상정원수중)

**합격예측 1위 교수진**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합격예측 1위 교수진  
 • 경향 영어 70% 합격률  
 • 똑똑하게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경향학 오딧  
 • 신강합격률 95% 이상  
 • 남부 영남권 전문  
 • 광주·대구·경북·대전 전문

수사 치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순천·대진 전문  
 • 광주·대구·경북·대전 전문

**www.mdgosl.co.kr**  
 ☎ 222-4560

**농산물품질관리사** **신한경월빙시대 최고의 자격증!**

**국비환급 100%**  
 시험일정: 2009년 8월 9일

특징:  
 • 농산물의 등급판정  
 • 중앙회, 지역농협 공채시 가산점 5점  
 • 공무원, 농업관련 직종 응시자 가산점 5점  
 • 관련업체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시 채용업체에 자금지원

**개강 5월9일(토)**

**광주 박문각 행정고시 학원** ☎062)529-8839  
 위치: 완암동 광안고가 옆 삼애신협 2층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전영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개강 5월 1일(첫 진도 첫 페이지)**

※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1년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합격예측 1위 교수진  
 • 경향 영어 70% 합격률  
 • 똑똑하게 쉽게 강의  
 • 강의경력 15년

경향학 오딧  
 • 신강합격률 95% 이상  
 • 남부 영남권 전문  
 • 광주·대구·경북·대전 전문

수사 치주운  
 • 강의경력 22년  
 • 광주·순천·대진 전문  
 • 광주·대구·경북·대전 전문

**www.gmega.co.kr**  
 ☎ 226-5050

**경전합문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